

[서식 예]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

당사자본인신문신청

사 건 20○○가합○○○ 대여금

원 고 ○○○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 본인신문을 신청합니다.

다 음

1. 원고 본인의 표시 : ○○○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○
2. 증명할 사항 : 피고 항변사실을 입증하고자 함.
3. 신문사항 : 별지와 같음

20○○. ○. ○.

위 피고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제○민사부 귀중

<2000가합000>



당사자(원고) 본인 신문사항

1.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. 0. 0. 금 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요?
2. 원고는 위 돈을 원고가 2000. 0. 0. 피고에게 빌려준 금 0000원의 원금 중 일부금으로 받은 것인지요?
3. 원고는 위 돈을 피고로부터 받을 때 위 돈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000원의 값을 날짜를 2000. 0. 0.로 연기해준 사실이 있는지요?
4. 기타 필요한 사항

-끝-

제 출 법 원	수소법원	관 련 조 문	민사소송법 제367조 내지 373조
제 출 부 수	신청서 1부		
의 의 및 보 충 성	당사자본인을 증거방법으로 하여,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진술케 하여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말하며, 당사자본인신문은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법원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허용됨(민사소송법 제367조).		
기 타	출석·선서·진술의무를 지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(민사소송법 제369조). 다만, 증인처럼 구인·과태료 등으로 출석·선서·진술이 강제되지는 않고, 선서하고 거짓진술을 하여도 형법상의 위증죄가 되지 않고 과태료의 제재만 받음(민사소송법 제370조).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당사자본인신문절차에서 당사자본인이 출석, 선서, 진술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「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」, 즉 신문사항에 포함된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법원이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 당사자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시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신문사항 가운데 어느 항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연후에 그에 의하면 상대방 당사자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것이 정당함(대법원 1990. 4. 13. 선고 89다카1084 판결). 다른 증거 없이 원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주장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(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3다카95 판결, 1987. 1. 20. 선고 86다카954 판결). 증거자료에 나타난 사실을 소송상 주장사실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 본인신문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진술도 증거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소송상 당사자의 주장과 같이 취급할 수 없고, 따라서 「피고의 재단기는 원고집에 있다. 잘못된 것을 해결해 주고 가지고 가라고 했었다」는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가지고 원고가 유치권 항변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(대법원 1981. 8. 11. 선고 81다262, 263 판결). 		